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백서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삶, 더 밝은 청소년들의 미래
고양시청소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백서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삶, 더 밝은 청소년들의 미래
고양시청소년의회가 함께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김다인

존경하는 16만 고양특례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김다인입니다.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의 23명의 청소년 의원들을 대
표하여, 그간의 의정 활동 내용과 정책제안의 결과물이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는 1대부터 지금의 8대까지 늘 고
양특례시의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
책제안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되어왔습니
다. 그리고 현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또한 23명의 청
소년 의원들의 열정과 참여를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 기
획행정, 건설교통, 문화복지, 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더 나
은 고양특례시로서의 발전과 성장, 청소년들의 더 나은 삶
과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공동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의정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 과정을 널리 공유하기 위
해 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을 고민하며 만들어낸 결과물들, 그간 펼쳐온 활동들, 걸
어온 발자취를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 청소년의원들의 고민과 열정이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와 협력의 가치를 느끼고, 나아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의 활동에 공
감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의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
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고민하며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장입니다. 올해 고양시청
소년의회는 단순히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을 넘어,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정책을 설계
하고 제안함으로써 실제 지역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상임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여러 정책 제안이 논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 의원들은 고양특례시의 현재와 미래
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정책 제안과 다양한 의제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청소년 참여가 지역사
회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활
동은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성장에 더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활동 기간 동안 청소년 의원들은 바쁜 학업과
일상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정책제안과 여러 의정
활동에 몰두하며, 고양특례시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
고, 끝없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완성해낸 제안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3명의
청소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양시청소년의회의 성장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
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
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고양특
례시 이동환 시장님, 늘 곁에서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
해 애써주신 도·시의원님들,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님, 그리고 항상 곁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신 김
귀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사 선생님들과 멘토님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의원들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청소년 의원들의 부모님들과 시
민 여러분의 관심은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의정백서가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는 기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와 함께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 고양특례
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가 지
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
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함께 만
들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더 나은 고양특례시를 만들어 나
가는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이끄는 밝은 빛이 되기를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위원장 선거은

존경하는 16만 고양특례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위원장 선거은입니다.

저희 고양시청소년의회는 16만 고양특례시 청소년 여러분을 대표하여 23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함께 모여 기획 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 분야에서 각자의 위원회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하였으며 고양특례시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활동은 고양시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고양시의 개선할 점을 발견하여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협력하여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정책제안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정책제안서는 정말 많은 고뇌의 시간과 청소년의원님들의 노력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정책제안서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 관련 교육을 받고 매 의정 활동 때마다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청소년의회의 활동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정백서는 2025년 동안의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을 기록하고 많은 분들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활동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이 바라본 고양특례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준비와 실천을 하였는지, 보다 나은 고양특례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유된 저희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들과 정책제안서를 통해 더 많은 고양특례시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더 나은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용기를 얻으시길, 고양시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더 많아지고 고양시청소년의회가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정 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저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바쁜 학업을 뒤로하고 보다 나은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어렵고 힘들었던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준 덕분에 지금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특례시 16만 명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저희 청소년 의원님들이 이번 의정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3명의 인원으로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 저희 청소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청소년 의원 여러분들이 고양시의 미래를 이끄는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동환 시장님과 모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며 이 밖에도 고양시청소년의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주셨던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님과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열정으로 청소년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김귀영 선생님 및 저희 고양시청소년의회에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셨던 박정원 멘토님, 백채린 멘토님, 이다솔 멘토님, 노희수 멘토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고양시청소년의회가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앞으로도 고양특례시 16만 청소년 여러분을 대표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고양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에 관심을 가지고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정책과 문화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



고양시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이 단순히 '내일의 희망'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모으며, 더 나은 정책과 제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7대에 걸친 활동 속에서 청소년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권익을 신장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청소년 참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제8대 청소년의회 역시 그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마두청소년수련관 관계자 여러분과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쁜 학업 중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참여한 청소년 의원 여러분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제안과 토론은 고양특례시의 청소년 정책과 문화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나눈 의견과 결정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특례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험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하고, 미래세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고양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숙함이 아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청소년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박정원

존경하는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장으로서 지면을 통해 여러분의 성장과 성취를 축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2019년 처음 청소년 활동에 발을 들인 이래로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의 의정백서에 축사를 실을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9개월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의 의정 활동이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정치란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는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정치의 한복판 속에서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오늘의 의정백서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셨나요? 보통의 정치학자들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꼽습니다. '내가 바꾸고자 했던 것', '내가 제안하고자 했던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집니다. 오늘의 의정백서와 여러분의 정책제안 및 조례 제·개정안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여러분의 정치적 효능감이 상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소년은 언제나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 무대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곤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청소년은 어리숙하고, 미숙한 존재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적어도 이 의정백서를 만들어 낸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결코 어리숙하고, 미숙한 존재의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정책의 수혜자로서, 때로는 정책의 제안자로서 얼마든지 활동하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임을 말입니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목소리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시작입니다. 정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외침이 사회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을 열심히 보태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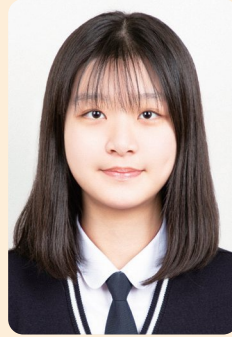
이 의정백서를 만들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곁에서 함께 달려온 김귀영 선생님과 세 분의 멘토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그 성취를 일구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으로 의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고양시 청소년재단 최희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특히 마두청소년수련관의 이재신 관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고양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의회가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9개월 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의회는 제 삶의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정 활동이 일상생활 속 작은 변화를 가져왔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의 9개월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변화는 고양시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단의 슬로건처럼,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주역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성장 동력으로 고양시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시민으로서, 후기 청소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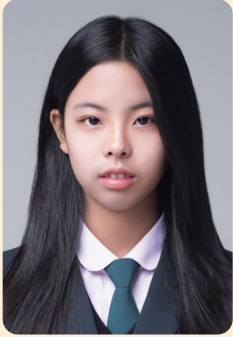


의장 김다인
고양국제고등학교
일산서구



부의장 선가은
일산동고등학교
일산동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하영
백마중학교
일산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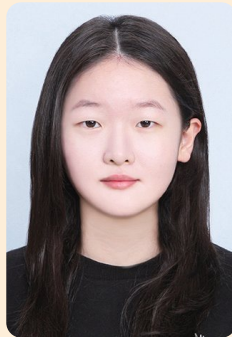
부위원장 양은호
풍동중학교
일산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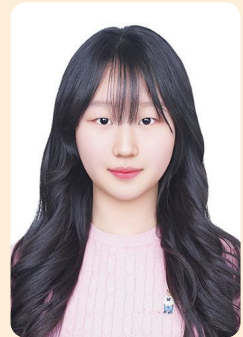
김예승
백마중학교
일산동구



김예음
정발고등학교
일산동구



송부경
신일중학교
일산서구



이혜리
서울디지털대학교
일산서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진하민
백마중학교
일산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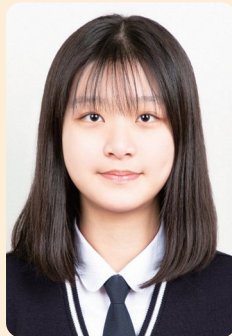
부위원장 강라현
백신중학교
일산동구



김시현
일산양일중학교
일산동구



김재이
정발중학교
일산동구



선가은
일산동고등학교
일산서구



차정운
정발초등학교
일산동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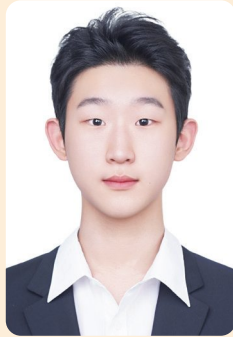
위원장 조주연
백석중학교
일산동구



부위원장 김은우
저현고등학교
일산동구



양서연
정발중학교
일산동구



이록
서울디지털대학교
일산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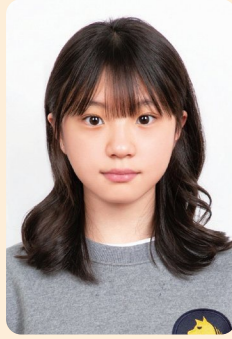


이서현
지축중학교
덕양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주은
백석중학교
일산동구



부위원장 이규리
오마중학교
일산서구



이혜인
일산양일중학교
일산동구



조예원
일산양일중학교
일산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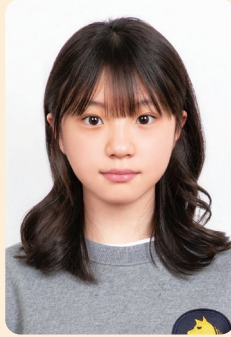


조현솔
백석중학교
덕양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은호
풍동중학교
일산동구



부위원장 이규리
오마중학교
일산서구



강라현
백신중학교
일산동구



김시현
일산양일중학교
일산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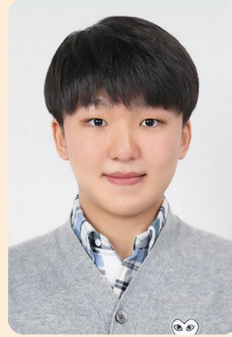
김은우
저현고등학교
일산동구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년 멘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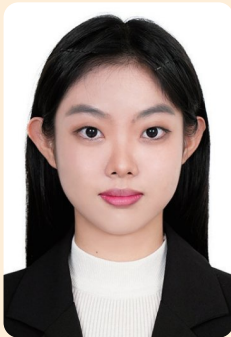
이다슬

유한대학교
기획행정위원회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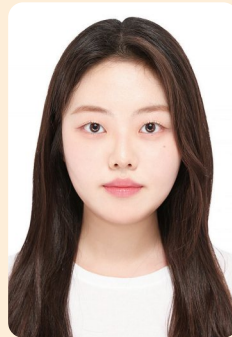
박정원

경희대학교
환경경제위원회 멘토



백채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설교통위원회 멘토



노희수

이화여자대학교
문화복지위원회 멘토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8th Goyang City Youth Council

2025. 8. 2. 제7차 정기회의

8th Goyang City Youth Council

2025. 8. 2. 친목 체육대회

8th Goyang City Youth Council

2025. 8. 9. 제2차 의정 활동 평가회

8th Goyang City Youth Council

2025. 8. 23. 제8차 정기회의

8th Goyang City Youth Council

2025. 9. 6. 하반기 의정 활동 평가회

8th Goyang City Youth Council

2025. 9. 13. 제9차 정기회의



목차

제1편 고양시청소년의회 기본현황	019
제1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020
제2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연혁	022
제3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024
제4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026
제5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사진	027
제6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028
제2편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029
제1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030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정책	033
환경경제위원회 제안 정책	041
건설교통위원회 제안 정책	049
문화복지위원회 제안 정책	057
의회프로젝트팀 제안 정책(3건)	067
경기북부 치안개선 제안 정책(6건)	081
제2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094
제3편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에필로그	111
청소년의원 의정활동 소감 - “나에게 고양시청소년의회란?”	113
청년멘토 소감 -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 멘토를 마치며’	129
제4편 부록	135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6



제1편

고양시청소년의회 기본현황

제1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020
제2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연혁	022
제3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024
제4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026
제5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사진	027
제6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028

제8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고양시청소년의회란?

-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고양특례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 출범식, 정책워크숍, 견학, 의정 활동(정책제안, 정책심의 등), 의정 활동 보고회, 본회의 개최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고양시 · 의회에 제안하는 청소년 대표 참여기구

추진근거

1)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UN, ICNYP)의 권고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2)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 · 협의 ·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 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양시 조례 제2892호(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양시청소년의회 연혁

2025	11월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보고회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 공청회
	10월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8월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하반기 의정 활동 평가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접수 (3건) 친목 체육대회
	6월	경기도·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제안 접수 (각 7건,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포함)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상반기 의정 활동 평가회
	5월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1차 정책 설문조사 경기북부 치안개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7건)
	4~10월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기회의
	4월	제8대 고양시청소년정책워크숍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식
	3월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 (청소년의원 23명, 청년 멘토 4명)
	1월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고양시조례 제2892호 / 2025.01.10.)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확대) (고양시조례 제2894호 / 2025.01.10.)

2024	11월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9월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4월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식
	3월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18명)
2023	12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10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7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4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식
	3월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6명)
2022	12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10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7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국회의사당 견학
	5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3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4명)
2021	11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10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및 시의원 간담회 개최
	8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2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7명)
2020	11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10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2회차)
	2~8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2019	12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개최
	8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1회차)
	6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선출(청소년의원 26명)
	4월	타 시도(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청소년의회 벤치마킹
2018	9월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8월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 교육
	7월	경기도 성남시 & 경상남도 양산시 청소년의회 의원교류
	5월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정책주장대회' 대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3월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27명)
2017	12월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활동)평가회 개최
	9월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8월	국회체험
	7월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30명)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
	1월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고양시조례 제1834호 / 2017.1.13.)

제3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30인 / 멘토 6인

- 교육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성교육 확대 및 증진
- 문화상임위원회 정치인과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 '정치인과 함께하는 토크(TalkTalk)'
- 안전상임위원회 바닥신호등 설치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6인 / 멘토 5인

-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카페 증설
- 안전상임위원회 공용 자전거 활성화, 학교 옥상 관련 규정 제정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6인 / 멘토 3인

- 교육상임위원회 과학실험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활성화
-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독서문화 증진 방안
- 안전상임위원회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0인 / 멘토 2인

- 교육상임위원회 저소득 및 차상위 청소년을 위한 '고양 북페이' 확대·보완 요청
- 문화상임위원회 환경인식 개선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 환경축제 - [정책반영]
-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
- 인권상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18인 / 멘토 5인

-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법·경제 축제 지원 - [일부반영]
- 문화상임위원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 안전상임위원회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의 필요성)
- 인권상임위원회 공립 특수학교 설치 및 지원

제6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0인 / 멘토 4인

- 교육상임위원회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
- 문화상임위원회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
-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해결 방안
- 인권상임위원회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해결 방안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18인 / 멘토 3인

- 교육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교 설립
- 안전상임위원회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대상 확대 - [정책반영], 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 의회프로젝트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편
- 의회프로젝트팀 청소년 디지털 윤리의식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 23인 / 멘토 4인

-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정보, 더는 어렵지 않게 시민 친화형 챗봇 도입안
- 환경경제위원회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 설치
-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
- 의회프로젝트팀 청소년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정책
- 의회프로젝트팀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 의회프로젝트팀 무음 속 구조요청, 침묵을 깨는 NFC 도입
- 경기북부 치안개선 정책 공원에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 배치
- 의회프로젝트팀 재난이력 알림 표지판
- 의회프로젝트팀 가평군 점자블록 설치 및 개선
- 의회프로젝트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 의회프로젝트팀 NFC 교통카드를 활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 주차장 신설
- 의회프로젝트팀 마두1동 횡단보도 신설

제4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의회	임기	최초 의원 수	의장단	의회 사무국
1대	2017년	29명	의장 박기병 부의장 유정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2대	2018년	24명	의장 노하영 부의장 강유수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3대	2019년 6월 ~2020년	26명	의장 박정원 부의장 김수빈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4대	2020년 6월 ~2021년	22명	의장 김민제 부의장 최보근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5대	2022년	24명	의장 김가영 부의장 조해원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6대	2023년	26명	의장 조해원 부의장 박채야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7대	2024년	18명	의장 김다인 부의장 이승현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8대	2025년	23명	의장 김다인 부의장 선거은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제5장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단



제1대 의장 박기병



제1대 부의장 유정은



제2대 의장 노하영



제2대 부의장 강유수



제3대 의장 박정원



제3대 부의장 김수빈



제4대 의장 김민제



제4대 부의장 최보근



제5대 의장 김가영



제5대 부의장 조해원



제6대 의장 조해원



제6대 부의장 박채야



제7대 의장 김다인



제7대 부의장 이승헌

제6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현황

청소년 의원

연번	소속	성명	학교	학년	성별	지역구	구분
1	제8대 의장	김다인	고양국제고등학교	2학년	여	일산서구	-
2	제8대 부의장	선가은	일산동고등학교	2학년	여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3	기획행정위원회	박하영	백마중학교	1학년	여	일산동구	위원장
4	기획행정위원회	양은호	풍동중학교	3학년	남	일산동구	부위원장
5	기획행정위원회	김예승	백마중학교	1학년	여	일산동구	-
6	기획행정위원회	김예음	정발고등학교	1학년	여	일산동구	-
7	기획행정위원회	송부경	신일중학교	3학년	여	일산서구	-
8	기획행정위원회	이혜리	서울디지털대학교	14세	여	일산서구	-
9	환경경제위원회	진하민	백마중학교	1학년	남	일산동구	위원장
10	환경경제위원회	강라현	백신중학교	2학년	여	일산동구	부위원장
11	환경경제위원회	김시현	일산양일중학교	2학년	여	일산동구	-
12	환경경제위원회	김재이	정발중학교	1학년	남	일산동구	-
13	환경경제위원회	차정윤	정발초등학교	5학년	여	일산동구	-
14	건설교통위원회	조주연	백석중학교	3학년	남	일산동구	위원장
15	건설교통위원회	김은우	저현고등학교	1학년	남	일산동구	부위원장
16	건설교통위원회	양서연	정발중학교	3학년	여	일산동구	-
17	건설교통위원회	이록	서울디지털대학교	15세	남	일산서구	-
18	건설교통위원회	이서현	지축중학교	2학년	여	덕양구	-
19	문화복지위원회	신주은	백석중학교	3학년	여	일산동구	위원장
20	문화복지위원회	이규리	오마중학교	2학년	여	일산서구	부위원장
21	문화복지위원회	이혜인	일산양일중학교	2학년	여	일산동구	-
22	문화복지위원회	조예원	일산양일중학교	3학년	여	일산동구	-
23	문화복지위원회	조현솔	백석중학교	3학년	여	일산동구	-

청년 멘토

연번	소속	성명	학교	학년	성별	학과
1	기획행정위원회	이다솔	유한대학교	졸업	여	산업디자인학과
2	환경경제위원회	박정원	경희대학교	3학년	남	정치외교학과
3	건설교통위원회	백채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학년	여	산업경영학과
4	문화복지위원회	노희수	이화여자대학교	1학년	여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제2편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제1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030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정책	033
환경경제위원회 제안 정책	041
건설교통위원회 제안 정책	049
문화복지위원회 제안 정책	057
의회프로젝트팀 제안 정책(3건)	067
경기북부 치안개선 제안 정책(6건)	081
제2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094

제1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 정책

정책제안명	예산정보, 더는 어렵지 않게 시민 친화형 챗봇 도입안
제안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명단	박하영, 양은호, 김예승, 김예음, 송부경, 이혜리

정책제안명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제안상임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명단	진하민, 강라현, 김시현, 김재이, 선가은, 차정윤

정책제안명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 설치
제안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명단	조주연, 김은우, 양서연, 이록, 이서현

정책제안명	고양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
제안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명단	신주은, 이규리, 이혜인, 조예원, 조현솔

정책제안명	청소년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정책
제안상임위원회	의회 프로젝트팀 A(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팀)
의원명단	김다인, 김재이, 박하영, 선가은, 양은호, 조주연

정책제안명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제안상임위원회	의회 프로젝트팀 B(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팀)
의원명단	김은우, 강라현, 김예승, 김예음, 진하민

정책제안명	무음 속 구조요청, 침묵을 깨는 NFC 도입
제안상임위원회	의회 프로젝트팀 C(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
의원명단	이혜리

경기북부 치안개선 정책 공모전

정책제안명	NFC 교통카드를 활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 주차장 신설
의원명단	강라현
정책제안명	가평군 점자블록 설치 및 개선
의원명단	김시현
정책제안명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의원명단	박하영
정책제안명	마두1동 횡단보도 신설
의원명단	양은호
정책제안명	재난이력 알림 표지판
의원명단	조예원
정책제안명	공원에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 배치
의원명단	진하민

기획행정위원회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정책

예산정보, 더는 어렵지 않게 시민 친화형 챗봇 도입안

의안번호	2025_01
의안종류	정책제안서(의견제안)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8일
발의의원	박하영 의원, 양은호 의원, 이혜리 의원, 김예음 의원, 김예승 의원, 송부경 의원
찬성의원	박하영 의원 등 6명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예산은 시정 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이에 주목하여, 청소년이 공공 예산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고양시 청소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진행한「고양시 예산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챗봇 활용 의향」 설문조사(응답자 183명) 결과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예산 사용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5.7%(매우 그렇다 37.4% + 그렇다 28.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정작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청소년들은 예산 정보에 관심이 있어도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설문에서 드러났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예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대화하듯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챗봇'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세금 사용처를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챗봇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소년이 세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고양시는 시민 중심의 예산 챗봇 시스템을 통해 예산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대한 예산 데이터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요약·정리하고, 텍스트 요약·카드뉴스·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정보 제공'과 '빠른 응답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고도화된 자연어 처리 기술과 데이터 연동 방식을 적극 적용한다.

챗봇 내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질문 위주로 FAQ를 구축해 언제든지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견 제안 기능을 추가해 시민이 예산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제안된 의견은 담당 부서에 전달·검토되며, 그 결과는 시민에게 다시 안내해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게 한다.

홍보 측면에서는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영상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나의 세금이 궁금해? 챗봇에게 물어봐!" 같은 슬로건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고양시는 시민과 행정 간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받는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3 사업대상(수혜자)

고양시 예산 챗봇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일부 청소년들에게 예산 사용 현황과 같은 행정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별도의 복잡한 보고서나 웹사이트를 찾아볼 필요 없이, 챗봇과의 간단한 대화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과 청소년이 시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챗봇 운영 사례에서 보듯, 간편한 접근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여왔다.

고양시 역시 예산 챗봇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 중심의 시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현재도 예산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제한된 것은 아니다. 고양 특례시청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일부 예산의 쓰임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 속하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시청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 '환경녹지과에서 녹지대 등 청소 용역, 공원 관리원 관리, 녹지 관리 사업을 위해 예산 사용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을 공개한다. 이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으며 이렇게 공개된 내용은 불과 2개이다. 이는 현재 고양특례시민들은 거의 예산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에서는 예산 및 집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예산의 행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적지만 공개된 예산 자료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고양시민들은 예산의 행방을 알아보기 어렵게 느낄 수 있다.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택스봇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상담용 서비스 챗봇이다. 국민들이 지방세 관련 민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 되었다. 위택스봇은 단순한 챗봇을 넘어, 지방세 민원 해결을 위한 디지털 행정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현재 위택스봇의 틀은 그대로 가되, 위택스봇의 질문 영역을 AI 챗봇의 도입으로 더 넓혀서 더욱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질문의 대담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주민세를 예로 들자면, 주민세를 위택스봇에게 물어보면, 제한된 질문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질문들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대담을 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구체적인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불편함이 지속되지 않게 현재 위택스봇에 AI 챗봇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구체적인 궁금증을 보다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게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6 사업효과(기대효과)

예산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시민들은 보다 행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면 예산 관련 민원이나 정보 공개 청구가 줄어들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산 흐름이 명확해지면 지역 내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공정 경쟁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에 신뢰를 받아온 위택스봇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수용성과 활용률 또한 높일 수 있다.

이번 챗봇 개선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 시민이 예산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신속한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청년 주체의 참여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7 소요예산(사업비)

A 업체에서 제안한 챗봇 개선 사업은 총 1,5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능 개발 비용으로 약 600만 원이다. 기존 챗봇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민원을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음성으로도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 다음으로 UI·UX 개선 비용이 200만 원인데, 이는 다양한 기기에서 챗봇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또한 서버 운영비는 1년에 약 120만 원으로, 챗봇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와 정기 업데이트 비용이 포함되는데, 보안이나 기능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8 첨부자료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5_01	발의의원	박하영 의원 등 6명
발의연월일	2025. 10. 18.	찬성의원	박하영 의원 등 6명

제안이유

- ▶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제1조(이하 제1조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민은 고양시 예산이 쓰이는 것을 쉽고 편리하게 알 권리가 있음. 시청, 의회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가 되지만 이를 아는 시민이 소수이며 청소년 등 대다수가 현재의 예산안을 보기 어려움에 따라 2차 가공된 정보가 필요함.
- ▶ 제1조(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4조(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고양시 시민들이 예산의 정보를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 ▶ 고양시 시민들에게 예산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시정의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정보 공개는 현재 있는 위택스봇에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하도록 함.(제4조 제3항)
- ▶ 위택스 봇은 정형화된 질문에만 답변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구체적이거나 복합적인 질문을 할 경우 대응이 어려움. 이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기본적인 질문에는 자동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은 담당자가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4조 제3항)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예산 소요 예산은 별첨한 정책 제안서 참조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 관련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다양한 정보화 수단과 온라인 서비스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산안의 공개) 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관련 챗봇 등을 통해 표준화된 형식과 분석·시각화된 자료로 공개되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 관련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다양한 정보화 수단과 온라인 서비스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예산안의 공개) ① ~ ②(생략) 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p>	<p>제4조(예산안의 공개)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관련 챗봇 등을 통해 표준화된 형식과 분석·시각화된 자료로 공개되어야 한다.</p>

환경경제위원회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제안 정책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통 추가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의안번호	2025-02
의안종류	정책제안서(의견제안)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8일
발의의원	진하민 의원, 강라현 의원, 김시현 의원, 김재이 의원, 선가은 의원, 차정윤 의원
찬성의원	진하민 의원 등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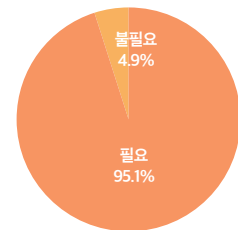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최근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나라와 특별시 및 자치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56.2%)은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환경문제 중 쓰레기처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는 쓰레기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통 설치를 추가하고 쓰레기통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쓰레기통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한다. 실제로, 고양시와 경기도의 다른 행정구역인 성남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성남시는 2025년 6월 말까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변 쓰레기통을 36개에서 1,500개로 확대 설치하였다.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 후 시에서 진행한 시민 3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86.3점으로 쓰레기통 추가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는 90만 명의 인구가 1,500개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106만 명의 인구가 116개의 쓰레기통만 사용하고 있다. 즉, 고양시와 성남시는 각각 인구 1만 명당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 수가 0.92개, 16.67개로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고양시는 객관적으로 인구 대비 쓰레기통 수가 성남시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고양시와 성남시의 면적은 각각 268.05km², 141.7km²로 면적 대비로 보면 고양시는 1km²당 0.43개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성남시는 1km²당 10.59개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어 면적 대비 쓰레기통 수가 약 25배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성남시에 비해 면적 대비 쓰레기통 개수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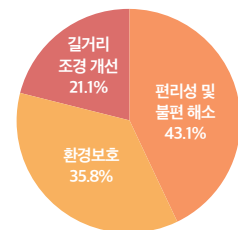
	인구수	면적	쓰레기통 수
성남시	90만 8천명	141.7km ²	1500개
고양시	106만 5천명	268.05km ²	116개

또한, 고양시 시민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양시 길거리 환경에 만족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49.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여기서 불만족으로 응답한 시민들은 대체로 고양시 길거리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길거리에 과도한 쓰레기와 담배꽂초,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이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길거리 쓰레기의 문제가 길거리 쓰레기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양시 내의 길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변 쓰레기통 개수 증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추가 쓰레기통 설치에 이어 고양시 시민 123명을 대상으로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에 관해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의 시민들이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편리성 증가 및 불편 해소'라는 이유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환경문제 개선과 고양시 시민의 편리성 증가 및 쓰레기를 버릴 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 내 추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여부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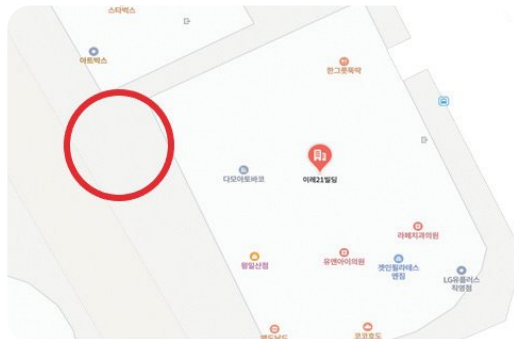
2 사업목적(제안 취지)

길거리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게 된다면 길거리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발생하던 다양한 문제(빗물에 의해 유해 물질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를 막아 토양과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자연 방치를 줄여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생태계 오염을 완화할 수 있다. 쓰레기통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길거리 쓰레기 문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고 고양시는 인구수에 비해 적은 쓰레기통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도시 미관이 좋아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쓰레기통 수가 현저히 부족한 고양시는 쓰레기통 설치를 추가하고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려주는 쓰레기통 표지판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겪었거나 쓰레기통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던 시민들이 쓰레기통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양시에 길거리 쓰레기통 수를 늘리고 쓰레기통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쓰레기통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어 도시 미관이 좋아질 것이고 고양시민들은 스스로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렸다는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는 많은 고양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길거리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통 추가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를 제안한다.

3 사업대상(수혜자)

고양시 거리의 쓰레기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던 고양시 시민과 고양시를 방문하는 여러 외부 방문객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이 직접 찍은 라페스타 길거리 현황] (아트박스 일산라페스타점, 이레21빌딩 앞 길거리 쓰레기 사진)

2021년 1월 국민 생각함에 올라온 제안인 “고양시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를 희망합니다.”에 따르면, 고양시 시민 111명 중 79.3%의 시민들이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고양시 시민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길거리 쓰레기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편함의 대한 정도’ 문항에서 55.8%의 시민들이 현재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고양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고양시의 길거리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고 고양시 시민들도 길거리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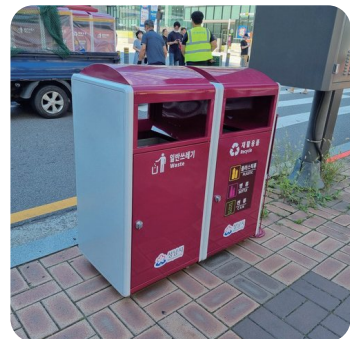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먼저 고양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파악하여서 한 지역당 최소 3개 이상의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고양시 시민이 공원, 학원가, 골목길 등 특정 지역에서 쓰레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이 보이며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공원이나 학원가, 골목길의 쓰레기통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쓰레기통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그리고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려주는 쓰레기통 표지판을 쓰레기통 1개당 2개씩 설치하여 쓰레기통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하고 쓰레기통이 이미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쓰레기통 표지판만 추가로 쓰레기통 1개당 2개씩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외에도 쓰레기통이 아예 없는 지역도 조사하여 유동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최소 1개 이상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통 1개당 그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2개 이상 설치(각 다른 곳에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하여 어느 방향에서 사람이 오더라도 정확한 쓰레기통의 위치를 파악하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쓰레기통 표지판의 경우에는 훼손 시 가로변 쓰레기통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나. 쓰레기통 디자인

성남시의 앞선 사업에 영감을 받아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가로변 쓰레기통을 시민이 쓰레기를 손쉽게 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일반 쓰레기 전용과 재활용품 쓰레기 전용으로 총 2개의 쓰레기통을 1세트로 구성했다. 이 쓰레기통은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인체 공학적 설계를 이용하여 관리 인원 및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디자인은 원활한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성남시의 쓰레기통 사진

다. 쓰레기통 표지판 디자인

고양시청소년의회 환경경제위원회가 고양시 시민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고양시 시민은 쓰레기통의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쓰레기통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서 쓰레기통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을 쓰레기통 표지판의 내용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쓰레기통 표지판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밝은 색상과 대비가 강한 색상을 사용하여 쓰레기통 표지판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과 환경적인 이모티콘이나 아이콘을 사용하여 쓰레기통 표지판이 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를 원했다. 쓰레기통 표지판의 환경적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표지판의 재질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잘게 자르거나 녹여 만든 재생 플라스틱을 표지판의 재료로 사용하면 소각장으로 가는 폐플라스틱의 양을 줄임으로써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신규 생산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환경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질을 재생 플라스틱으로 정했다.)



▲ 쓰레기통 표지판 예시 디자인

6 사업효과(기대효과)

가. 쓰레기통 수 증가로 시민 불편 해소

고양시에 설치된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 쓰레기통이 부족해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쓰레기통 추가 설치를 통해 쓰레기통 수를 늘리게 된다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되어 고양시 시민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나. 무단투기 방지 및 도시 이미지 향상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쓰레기통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어, 거리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거리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고양시 거리를 통해 고양시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도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분리배출 유도 및 재활용률 증가

분리배출형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재활용을 실천하게 된다. 쓰레기통에 분리배출 기능이 추가되면서 고양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생활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양시의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자원 순환에 기여하게 되어 환경보호를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 쓰레기통 위치 파악 효율화

쓰레기통 표지판을 통해 시민들이 쓰레기통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지판을 설치하면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들고 다니다가 무단투기를 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쓰레기통 표지판을 통해 도시 환경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7 소요예산(사업비)

가. 쓰레기통 예산

기존 쓰레기통 116개에서 일산동구 각 동에 이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약 6개씩 총 80개 설치하고 쓰레기통 표지판은 각 동에 약 8개씩 총 100개를 시범 설치한다. 이 쓰레기통의 가격을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쓰레기통의 가격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하나당 330,000원이다. 그러므로 쓰레기통의 예산은 약 2,600만 원

나. 표지판 예산

재질을 재생 플라스틱(압축 페트병 > kg당 450~550원)으로 하면 표지판의 무게는 평균 10~30kg으로 개당 약 10,000원 (5,139원~15,417원)이다. 정책 제안에서 표지판 개수를 100개로 정했으므로 약 300만 원 (1,541,700~4,641,300원)

다. 관리 예산

쓰레기통 및 쓰레기통을 관리할 인원을 일산동구 각 동마다 2명씩 추가 배치한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월평균 월급이 약 250~350만 원이므로 총 인건비는 월 6,000~8,400만 원 소요

이 금액이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과도한 업무 배정으로 인한 피로를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쓰레기통 단가	330,000원
추가 제작 쓰레기통 수	80개
쓰레기통 추가 설치 비용	26,400,000원
재생 플라스틱 단가(kg당)	450~550원
재생 플라스틱 표지판 무게	10~30kg
재생 플라스틱 표지판 단가	5,139~15,417원
재생 플라스틱 개수	100개
재생 플라스틱 표지판 설치 비용	513,900~1,541,700원
관리 인원 1인당 인건비	월 250~310만원
추가 관리 인원	24명(통마다 2명 추가)
총 인건비	약 6000만원~8400만원
총 예산	약8650만원~1억 1150만원

건설교통위원회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 정책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 설치

의안번호	2025-03
의안종류	정책제안서(의견제안)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8일
발의의원	조주연 의원, 김은우 의원, 양서연 의원, 이록 의원, 이서현 의원
찬성의원	조주연 의원 등 5명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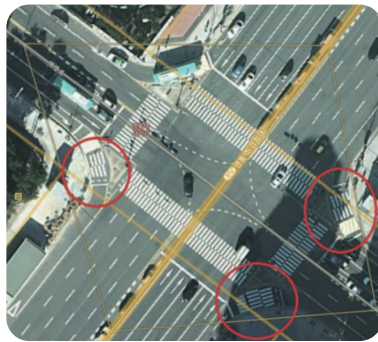
최근 여러 대형 공연 개최로 자주 이용되던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의 잔디 손상 문제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그 대안으로 고양종합운동장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2024년 8월부터 올해 2025년 상반기까지 지드래곤, 콜드플레이, 블랙핑크 등 여러 유명 가수들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시행했다. 실제로 매일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고양종합운동장은 근 1년간 무려 69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였다.

고양종합운동장이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3호선의 종점인 대화역 바로 앞이고, 37개의 버스노선이 집중적으로 운행되는 교통 허브 구간이다. 또한 일산백병원, 일산서구청, 킨텍스 등 여러 시설물이 밀집된 대표적인 변화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구간은 많은 유동 인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주변 교통 환경이 매우 혼잡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교통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섬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교통섬 형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 정지 준수율은 31.7%로 전체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양종합운동장 및 대화역 사거리 인근 도로의 인프라 시설물 보강이 시급함을 입증한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본 정책은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경찰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당 교통섬 구간에는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 특히 교통약자에게 상시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에게도 명확한 신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업은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행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고양시의 전반적인 교통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대형 공연 시에도 일시적인 혼잡과 보행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킨텍스역, 원마운트 인근 교통섬에 설치된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

실제로 2025년 4월, 우리 상임위에서 고양시민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교통섬 신호등 설치는 보행 안전을 매우 증진 시킬 것”이라 응답하였다. 또한 이미 충남 당진시와 같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이 대폭 감소한 사례가 있다. 게다가 고양시 역시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킨텍스역 사거리 교통섬의 경우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이 사례 역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선진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고양시의 교통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교통섬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시민이 보행 안전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고양시 교통안전 향상은 물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라 사료된다.

3 사업대상(수혜자)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이용하는 모든 고양시민 및 방문객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2025년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흘간 약 31만 명의 관객이 동원된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이 시행되던 당시, 교통혼잡을 알리며 우회를 권장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또한 교통경찰이 다수 동원될 정도로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다. 이는 단기간에 많은 유동 인구를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년 말에 이 사거리의 도로 시설물이 개선되었지만, 대형 공연을 열 때마다 교통경찰이 다수 동원되는 등 여러 혼잡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거리의 도로 시설물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교통섬과 인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와 차량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도로 시설물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025년 4월 24일,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당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상황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시민들이 해당 사거리의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부분에 차량용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도 해당 문제점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차량용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시급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령 우회전으로 교통섬을 통과하려는 차량과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통행 신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충돌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시 교통의 중심지이자 혼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교통섬이 설치된 고양시 내 다른 주요 지역에도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을 체계적으로 설치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에는 현재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즉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동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보행자가 해당 사거리를 횡단할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차 흐름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교통섬에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을 통해 차량의 우회전 흐름을 신호 체계 안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어 충돌 위험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교통섬에 설치할 수 있는 신호등의 종류로는 ‘보행자용 신호등’과 ‘차량용 신호등’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우리 상임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보행자 신호등보다는 차량용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하려는 차량용 신호등보다 보행자 신호등이 예산 소요가 두 배 더 많고, 특히 보행자용 바닥 신호등은 날씨 등에 의해 고장 날 확률이 더 높으며, 설치 후 시설 유지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본 정책 제안에서 우리 상임위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섬에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및 질서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곳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뿐만 아니라 고양시 내 안전이 취약한 모든 교통섬의 시설물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조례를 통해 교통섬의 안전 시설물 설치에 관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체계의 개선은 단순한 장비 설치를 넘어 우리 시 도로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섬의 모습

6 사업효과(기대효과)

앞서 언급한 신호등의 설치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질서 있게 보장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를 안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우선 보행자가 교통섬을 횡단할 때 명확한 신호 체계에 따라 안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 및 이행할 기본 책무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교통섬 구간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도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을 통해 명확한 교통 신호를 인지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심하며 통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통안전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법적 의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호체계의 정비는 무단횡단 등의 교통 법규 위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며, 고양시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통 및 환경적 개선은 시민의 체감 안전도와 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며 근본적으로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더 안전한 고양시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7 소요예산(사업비)

우회전 신호등 본체 및 지주 설치	신호등 장비(LED 신호등, 컨트롤러 포함)	1대당 약 150만 원
	지주 및 기초 공사	약 200만 원
	소계	약 350만 원
신호 제어기(제어함) 연계 및 통신공사	기존 신호 제어기와 연동 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정	약 200만~300만 원
	통신 케이블 및 관로 매설 (또는 무선 송수신기)	약 100만~200만 원
	소계	약 300만~500만 원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 시설 보수 공사	노면 표지(우회전 유도선, 정지선 등)	약 50만~100만 원
	표지판 추가 및 이전	약 30~50만 원
	소계	약 80만~150만 원
설계 및 행정 처리 비용	설계 용역 또는 현장 조사	약 100만~200만 원
	신호 체계 변경 승인 행정 절차(자문 포함)	약 50만 원
	소계	약 150만~250만 원
총 예상 비용	신호등 한 대당 약 1,050만 원(± 150만 원) 소요 예상 사거리 내 총 4대 설치 시: 약 4,200만 원 소요 예상	

8 첨부자료

고양시 교통섬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고양시 교통섬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주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5-03	발의의원	조주연 의원 등 5명
발의연월일	2025. 10. 18.	찬성의원	조주연 의원 등 5명

제안이유

- ▶ 고양시 내 교통섬으로 정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교통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 ▶ 특히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킨텍스 사거리,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동국대 병원 사거리 등과 같이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음과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고, 주택밀집도가 높은 교차로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 최근 고양종합운동장과 킨텍스에서의 공연행사 개최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더샵 일산 퍼스트 월드 등의 신축 주거단지가 건설되고 입주가 시작되며 고양시 내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로 인한 교통체증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 ▶ 고양종합운동장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여러 연예인이 공연을 시행했으며 많은 버스노선이 집중 운영되어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주변 교통이 혼잡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고양종합운동장 도로의 인프라 시설물 보강이 시급함을 입증한다.

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전문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예산 소요 예산은 별첨한 정책 제안서 참조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관련 부서 : 제2부시장 교통국

고양시 교통섬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양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고양시 내의 교통섬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통섬’이란 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처리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 ② ‘교통섬 안전 시설물’이란 ‘차량용 신호기’로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 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전시설(차량용 신호기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고양특례시 내의 교통섬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보행자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통섬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제5조(기본 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고양시 내 교통섬의 차량용 교통 신호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섬 이용 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섬 안전 시설물 설치 등)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섬 보행자 안전 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통섬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 안전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교통섬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유동 인구,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안 정책

고양시 여성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

의안번호	2025-04
의안종류	정책제안서(의견제안)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8일
발의의원	신주은 의원, 이규리 의원, 이해인 의원, 조예원 의원, 조현솔 의원
찬성의원	신주은 의원 등 5명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을 비치·제공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 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 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 전체 공중화장실 1,044개소 중 오직 16개소에만 생리대 자판기가 배치되어 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2025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관내 시민 190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한 고양시 여성 시민의 45%가 공중화장실에서 생리대가 없어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리대가 없어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설문 조사의 질문에 가장 흔했던 답변은 답변 54개 중 36개를 기록한 “생리 중 깜박하고 생리대를 챙기지 못해 곤란했다.”였다. 그중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생리대를 사와 달라고 부탁했다”, “생리대 대신 휴지를 깔고 있었다”, “생리혈이 새서 곤란했다”라는 답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특히 청소년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인 고양시민의 84.8%가 이 제안이 실행될 시에 만족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고양시민도 이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을 알 수 있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이번 고양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2025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관내 시민 190명 참여)에 의하면 고양시 여성 시민의 40%가 생리대가 없어서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고양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특히 공중화장실의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배치를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사업대상(수혜자)

고양시 여성청소년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현재 조례상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을 비치·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일부(도서관 7개소, 청소년 수련관 4개소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37.9%이다. 또한, 현재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홍보가 미비하다.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양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를 통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고양시청소년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인 고양시민의 84.8%가 이 제안이 실행될 시에 만족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생리대가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의 필요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 전체 공중화장실 1,044개소 중 오직 16개소에만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가 배치되어 있다. 고양시청 주무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양시는 여성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설치해 왔다.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여성시민, 특히나 여성청소년의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가가 적합하다. 따라서 백마와 후곡 학원가의 공중화장실에 시범운영 하여 초, 중, 고 주변 300m 이내 공중화장실 중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화장실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료 지급기 설치 범위

여성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가. 고양시에는 백마(백마 2, 3단지 사거리~마두1동 사거리), 후곡(후곡마을 사거리~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총 2개의 학원가가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여 화장실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백마 학원가 공중화장실 2개소*, 후곡 학원가 2개소**에 설치한다. 각 화장실은 민간 건물 소유를 제외한 화장실이며, 모두 학원가 사이에 있는 공원이며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다.

* 백막공원개방화장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4-3), 모범공원 공중화장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318-4)

** 오거리공원 공중화장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220-4), 후곡롯데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공중화장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51)

무료 지급기 홍보 방안

고양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설치에 관한 청소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스터 공모전 개최

고양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당선작을 홍보 시 활용한다. 특히, 당선작을 통한 SNS 홍보를 진행하여 청소년의 시각에 특화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생리대 챙겨줄고양'으로 명명한다.

관리 방안

현재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는 환경미화원분께서 생리대를 채워주고 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5개, 행사 때는 20개까지 나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원가 및 학교 주변 공중화장실에도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매주 정기적으로 보충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6 사업효과(기대효과)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가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설치하면 특히 성인에 비해 갑작스러운 생리에 대응이 미숙하고 생리용품을 챙기는 것을 자주 잊는 청소년들이 이동 중에 즉시 생리용품을 구할 수 있는 안전망이 확보된다.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 교수팀이 2006~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여학생 35만 1,006명(12~18세)의 초경 연령을 분석한 결과, 1988년 출생아의 초경 연령은 13.0세, 2003년 출생아는 12.6세로 15년간 5개월가량 앞당겨졌다.

7 소요예산(사업비)

현재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3달 동안 사용한 생리대는 470개이다. 1월부터 3월 3달간은 332개로, 한 달간 대략 134개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생리대(그날엔순

▶ 상품정보 products information



자동판매기의 규격

제품명 : 일회용품 자판기 2단
규격 : 670 x 485 x 180 mm (W x H x D)
단수 : 2단
적용용량 : 1명당당 16~24개 (총 35~48개)
무게 : 15kg
비고 : 2단이면 소형이라고 생각하시면는데
의외로 부피가 큼니다.
가로는 55cm, 높이는 48.5cm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 동서테크-2단 수동식 무료 생리대 자판기 49만 원

면 오가늬)는 64개에 15,500원이다. $134 \times 242.1875 = 32,468$ 이므로 한 달에 32,470원이 소요된다.

또한 생리대 무료 지급기 본체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490,000원이므로 4개소 설치 시 1,960,000원이다. 따라서 4개소에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설치 시 소요되는 예산은 생리대 지급기 구입에 200만원, 한달에 사용되는 생리대 구입 비용은 129,880원이다.

8 첨부자료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주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5-04	발의의원	신주은 의원 등 5명
발의연월일	2025. 10. 18.	찬성의원	신주은 의원 등 5명

제안이유

- ▶ 생리의 경우 여성들의 건강할 권리이자 인권의 문제로 위생용품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생리대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위생용품 또는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음.
- ▶ 그러나, 현행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여성용 위생용품의 비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따라서 해당 조례 제9조를 일부 개정하여, 생리대 무료 지급기 설치 범위 확대 근거 마련을 통한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편의용품 비치·제공의 예외가 가능한 사례에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외함.
- ▶ 추가 조항을 제정해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이를 통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예상 소요 예산은 별첨한 정책 제안서 참조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관련 부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설치)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1. 초·중·고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의 공중화장실 중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2. 백마학원가(백마 2, 3 단지 사거리~마두 1동 사거리), 후곡학원가(후곡마을 사거리~일산3행정복지센터) 반경 300m 이내의 공중화장실 중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p> <p><신설></p>	<p>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 <삭제></p> <p>②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설치)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p> <p>1. 초·중·고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의 공중화장실 중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2. 백마학원가(백마 2, 3 단지 사거리~마두 1동 사거리), 후곡학원가(후곡마을 사거리~일산3행정복지센터) 반경 300m 이내의 공중화장실 중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p>

의회프로젝트팀A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회프로젝트팀A 제안 정책

청소년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정책

의안번호	2025-05
의안종류	정책제안서(의견제안)
소관위	의회 프로젝트팀A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팀)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8일
발의의원	김다인 의원, 김재이 의원, 박하영 의원, 선가은 의원, 양은호 의원, 조주연 의원

1 제안이유(추진배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많은 국가들은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자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주변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한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 재난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이미 보았던 영상을 재시청한다는 것, 영상을 보는 것이 지루하다는 것을 이유로 꽤 많은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아동 재난안전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영·유아 재난안전 교육 실태조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교육을 전문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는데, 이 또한 현재 재난안전 교육의 부족함 측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직접 찾아가는 재난교육이나 체험형 재난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여러 재난 상황에 보다 확실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2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해당 법령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균등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13조에서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체험관 운영이나 민간 전문 강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청소년 안전교육이 여전히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기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통계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부족하지만,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사례는 보고되고 있다. 뉴스로(2023)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화재 대피, 완강기 이용 탈출, 전기·가스 사고 대응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은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본 결과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자신감이 생겼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zum 뉴스(2025)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실제 대피훈련 등 학생 주도의 재난 안전 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이다. 체험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많지 않고, 실제로는 단순히 PPT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교육 효과가 크지 않다. 게다가 지역이나 학교 간의 인프라 격차로 인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게다가 지역이나 학교 간의 인프라 격차로 인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체험관이나 전문 강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형식적인 교육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 역시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 1~2회 정도로 훈련이 제한되어 있어, 학생들에게는 비일상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기 쉽고, 이는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체계도 부

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부족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는 대부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 안전 교육 교사 양성이나 교사 대상 정기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사 인력과 예산 문제로 인해 모든 학교에 전문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 체험시설 활용, 전문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등 보안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청소년 안전 교육을 위한 매뉴얼과 표준 커리큘럼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형식적인 이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충분히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은 제도적인 기반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부족하고, 지역이나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절실하다.

3 정책제안

현재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은 매년 동일한 영상 시청이나 단순 강의에 그쳐 효과와 참여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 시설과 국민안전체험관을 연계하고,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생존기술 체험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 재난 안전 교육 인증제’를 도입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수증 발급과 수강 기록 관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안전교육 플랫폼은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학습 습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은 위험 인식과 판단 능력이 성인과 다르며 모바일·SNS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퀴즈나 시나리오 기반 학습 등의 청소년 맞춤형 정보전달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해 현재 재난안전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실질적인 재난 발생 시 청소년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가이드북은 실물 책자 이외에도 전자책, PDF 파일, QR코드 포스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배포하고, 간결한 언어와 삽화를 활용해 화재, 지진, 수해 등 재난 상황별 대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 청소년 재난 안전단을 조직해 청소년이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는 정기 훈련, 안전 캠페인,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운영되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청소년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청소년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과 가이드북 배포 등의 정책은 청소년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의 확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 중심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움직이며 몸으로 익히는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청소년 맞춤형 가이드북 보급과 정보 플랫폼의 도입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청소년의 재난 대응 능력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의회 프로젝트팀B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회 프로젝트팀B 제안 정책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의안번호	2025-06
의안종류	정책제안서(의견제안)
소관위	의회 프로젝트팀B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팀)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8일
발의의원	김은우 의원, 강라현 의원, 김예승 의원, 김예음 의원, 진하민 의원

1 제안이유(추진배경)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중 약 42.6%가 '스마트폰 의존군 위험군'에 속하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디지털 공간에 더 오래 머물며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량 급증과 SNS, 커뮤니티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괴롭힘과 인신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주당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36.2시간으로, 하루 5시간 이상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디지털 노출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갈등과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게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가해자를 피하기 어렵고, 익명성과 정보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디지털 주체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은 필수적인 문제로, 정부와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디지털 자가 진단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현재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은 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SNS 및 커뮤니티 플랫폼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노출, 부적절한 콘텐츠 공유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부의 정보통신 윤리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 콘텐츠 감시 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법률은 예방적 접근과 실시간 대응엔 아직 부족하다.

사이버불링과 같은 사이버 범죄들은 디지털 환경의 익명성과 정보의 빠른 확산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무의식적으로 위치 정보, 개인 사진, 부적절한 댓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유하며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주로 이론 중심의 강의나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게시물을 스스로 탐지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익명성과 빠른 정보 확산은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를 확대시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사소한 게시물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기존의 법률과 정책은 청소년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예방 중심의 접근, 실시간 위험 감지, 실

질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의 부재로 인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디지털 흔적을 관리하고 위험을 인지하며 대응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정책제안

청소년들이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SNS 연동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SNS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물, 댓글, 이미지 등에서 개인정보 노출, 부적절한 언어, 사이버불링, 자해 표현 등을 시가 자동으로 탐지한다. 욕설이나 불건전한 표현은 ‘빠-’ 처리 등으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민감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관련 콘텐츠는 삭제·수정 방법을 함께 안내해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동 전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며, 시는 ‘읽기 전용’으로만 접근하고 모든 데이터는 분석 후 즉시 폐기된다. AI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해 청소년이 직접 결과를 검토·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잘못된 탐지 결과는 신고·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정기적인 활동 리포트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온라인 습관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며, 필요시 비식별 정보만 보호자나 학교와 공유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안전 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교육기관과 협력해 시범 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디지털 주체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대효과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는 단순한 점검 도구를 넘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자가진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온라인상에 남긴 디지털 흔적이나 위험한 게시물을 점검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외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율적인 점검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가 드러난 게시물, 외부로 공유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 혹은 부적절한 표현 등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이나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자가진단 결과로 생성된 디지털 활동 리포트를 교사나 부모님과 공유하면, 보호자께서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도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자가진단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교육과 달리,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디지털 시민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이나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의회 프로젝트팀C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회 프로젝트팀C 제안 정책

무음 속 구조요청, 침묵을 깨는 NFC 도입

의안번호	2025-05
의안종류	정책제안서(의견제안)
소관위	의회 프로젝트팀C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지원팀)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8일
발의의원	이혜리 의원

1 제안이유(추진배경)

현대 사회에서 범죄나 위급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골목길·인적이 드문 장소·심야 시간대는 위험이 큼니다. 통계청 「2024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 비중은 30.5%로 2년 전보다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44.9%)가 남자(15.8%)보다 야간 보행 시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신고 방식은 112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문자 입력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는 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해야 하므로 몇 초~수십 초가 더 소요되며, 주변 시선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정부와 지자체는 CCTV 확대, 순찰 강화, 안심귀가 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는 사후 확인용으로 즉각 대응이 어렵고, 순찰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안심귀가 앱은 실행까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데이터·배터리 의존도가 높아 위급 시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은 피해자가 직접 통화해야 하거나 특정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보다 간단하고 빠른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3 정책제안

본 제안은 NFC 기반 안심존 시스템 구축입니다.

범죄 취약지역(골목길, 지하주차장, 공원, 공중화장실, 학교 주변)에 NFC 태그를 부착합니다. 부착 기준은 경찰청 범죄 통계, 여성 안심 귀갓길 데이터, 주민 신고 빈도를 종합하여 선정하며, 시범사업은 상권 밀집 지역·대학가·지하철 환승 구역에서 우선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합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태그에 대는 것만으로 다음 기능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OS 긴급 전송

버튼을 누르는 즉시 경찰에 위치 정보와 주변 사진(카메라 자동 촬영)이 전송됩니다. 소리나 알림 없이 진행돼 주변에 노출되지 않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통화 모드

버튼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지만, 사용자 화면에는 부모님·친구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경찰은 사전에 준비된 ‘안심 대화 매뉴얼’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거짓 신고 대응

간편성을 악용한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에 따라 허위 신고 시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며, 경찰 장난 전화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합니다. 반복 허위 신고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과 법적 조치로 재발을 방지합니다.

4 기대효과

첫째, 신고 과정 단순화로 대응 속도가 빨라져 범죄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해 지역사회 전반의 체감 안전도가 향상됩니다.

셋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설치 없이 간단히 이용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높고, 기존 정책(순찰·CCTV)과 병행 시 안전망 강화 효과가 큼니다.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공모전

경기북부 치안개선 제안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피프틴 자전거는 2010년 3월 고양시가 시작한 공공자전거 서비스이다. 고양시에 입고되었던 피프틴 자전거의 총 수는 4683대였지만 2019년 기준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던 1715대중에서도 기부된 283대를 제외한 1400여대는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자전거다.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는 피프틴 자전거는 2010년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9년까지 무려 976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약 100대 꼴로 자전거가 분실되는 셈이다.

이것으로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조차도 관리가 부족하며 분실 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관리되지도 않는 일반 자전거들의 경우에는 분실 수가 더욱 더 많을 것이다.



이 사진들은 모두 백마 학원가의 자전거 거치대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미 백마 학원가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둘 자리가 없어 자전거를 다른 곳에 놓는 경우가 많아 인도를 더욱 좁게 만들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전동 킥보드는 주차장조차도 없어 인도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심지어 넘어진 킥보드들도 있다.

이곳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녹슬거나 더러워진 거치대가 많다.

제안내용 및 개선방안

백마 학원가 NFC 교통카드를 활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 주차장 신설

백마 학원가는 고양시의 주요 학원가 중에서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 문제가 큰 지역 중 하나이다. 백마 학원가에는 가드레일형 자전거 거치대가 이미 있으나 관리가 부족해 이미 노후되어 거리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치대의 수도 부족해 미처 주차하지 못한 자전거들이 다른 구역에 주차되며 통행로를 막고 있다. 또한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나이대, 불법 주차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했을 때 시범 운영 장소는 백마 학원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고려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 학원가 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문제 및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NFC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 수단 주차장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 부식되거나 오염되었던 기존 철제 자전거 거치대에서 도시 친화적 디자인의 자전거 및 킥보드 거치대로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공유 자전거 거치대마다 NFC 리더기를 설치하여 자전거를 주차한 상태로 NFC 교통카드를 인식하면 거치대가 잠금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를 다시 가져갈 때에는 무조건 같은 교통카드를 인식해야만 잠금을 해제한 후에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존 자전거 주차장에서 부족한 주차장 수만큼 더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들의 경우에는 서비스사와 협력하여 교통카드를 등록해 교통카드를 찍기만 하면 바로 반납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다.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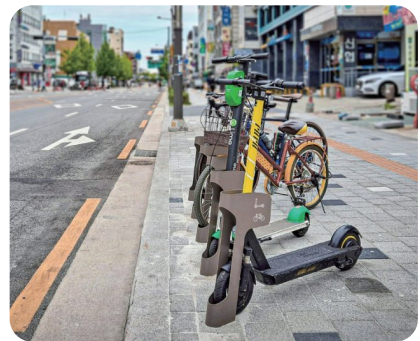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학원가 자전거 및 킥보드 불법주차 및 도난 사고 예방

NFC 자전거 거치대의 수를 기존 주차장 보다 많이 늘리면 당연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그동안 주차하지 못한 자전거 나 킥보드도 주차공간을 찾아 통행로를 넓힐 수 있다. 만약 자전거와 킥보드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주차할 수 있다면 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거치대에 부착된 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인식하면 거치대가 잠금 상태로 되며 다시 가져갈 때에는 같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는 이상 잠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도난 사고도 줄어든 것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학원가 거리 조경 개선

불법 주차되어 길을 막거나 쓰러져 있는 자전거 및 킥보드들은 이 거리의 조경을 해치고 있다. 기존의 자전거 거치대를 개선하면 이런 거리의 방해물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대표적인 상징을 포함한 새 깔끔한 디자인의 거치대를 도입하여 '거리의 흉물'이라 불리던 자전거 거치대를 도시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

강동구가 암사동 유적의 대표 유물인 빗살무늬토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하면서 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자 강동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형태와 크기에 상관없이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개발한 것이다.



▲ '2022 굿 디자인 어워드' 환경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한 자전거-PM 겸용 거치대 'ALIGN(얼라인)'

제안 배경 및 이유

오늘날 점자블록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각장애인 이외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눈이 되어준다. 과거부터 점자블록에 대한 미흡한 이해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2016년,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점자'에 관련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점자블록 부적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전국 7,019개의 점자블록 중 단 283개(4%)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정 설치 또는 미설치였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점자블록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평군의 점자블록 설치에 관련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6월 경인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중 86%가 부적격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가평에서는 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중 점자블록이 의무설치 대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제안내용 및 개선방안

- ▶ 가평군의 점자블록 설치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규격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자블록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단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이므로 가평군청 점자블록 미설치율이 59.1%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자블록 증설부터 시작한 후 개선을 해야 한다.
- ▶ 가평군 점자블록 미흡에 관련해 언급이 비교적 많았던 장소는 가평군청이다. 가평역, 가평터미널 특정 장소가 아닌 가평군의 전체적인 점자블록 미설치에 이미 지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으며 가장 큰 효과를 보여줄 장소는 가평군청으로 이를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 가평군 내 한 교차로 횡단보도(경인일보)



▲ 가평군 청평터미널 옆 인도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으로 인해 가평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평군의 경우, 전부터 점자블록 설치에 민원이 많았고, 최근에서야 가평읍 ‘야간경과 특화거리’ 등에 2년여 만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장애인 등의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조치가 느렸다. 또한 점자블록 한 개의 평균가격은 대략 5000원으로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안 배경 및 이유

현재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기일보'에는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수 분 동안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아 가만히 서 있었다는 일화가 보도되었다. 또 '미디어 생활' 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고작 43.3%로 과반수 미만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감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제도적인 행정적 관심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시각장애인 인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예산 투입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제안내용 및 개선방안

음향신호기를 설치를 확대하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호등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는 시각장애인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 요구가 있는 곳(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에 음향신호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도 내에서 가장 장애인 등록 수가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와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고양시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먼저 음향신호기의 음성은 모두 동일하게 맞춘다. 예를 들어 파란불이 켜졌을 때 “파란불입니다”, 보행 가능 시간이 10초 남았을 때 “10초 남았습니다” 같은 문구를 넣는다. 음향신호기 관리(수리 재설치 등)는 고양특례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책임진다. 또한 시청은 현재는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로, 이를 대비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유지 관리비는 장애인 복지 예산, 교통안전기금 등을 통하여 사용한다. 장애인 시설, 초등학교, 노인 복지 시설 인근 교차로 하여 보행 약자 밀집 지역을 우선 설치한다. 다음으로 도심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여 안전 위험 지역으로 중심 확대한다. 그 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각적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도로 횡단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음향신호기의 안내음성과 경고음이 보행자에게 즉각적인 신호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또,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향상되어 교통질서 및 문화를 개선 시킬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음향신호기의 설치 비용이 그리 높지 않음으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교통안전기금, 국비 매칭 사업 등을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유지관리비가 낮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음으로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이다.

또한 음향신호기의 설치는 단순한 교통시설 보완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교통약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법적 근거와 행정 실행력이 매우 높다.

제안 배경 및 이유

마두1동은 횡단보도 부족으로 노약자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두1동에는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강석로 145)이 있으며, 고양시 내 21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인근 일산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마두1동 통행이 잦아 횡단보도 증설이 시급합니다.

현재 일산동구 208과 214의 거리는 349M인데, 횡단보도는 존재하지 않고, 육교만 있기에 통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멀리 우회하거나 위험하게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거동 불편 노약자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인근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산책, 여가 활동을 위해 매일 이동해야 함에도 횡단보도 접근성 부족은 이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은 노약자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이에 마두1동 횡단보도 증설을 통해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행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및 개선방안

마두1동 내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강석로 145 일대에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신설 시,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및 인근 장애인 시설 이용자들의 통행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산동구 208과 214 사이 349m 구간에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횡단보도에는 음향신호기, 점자블록, 보행자 작동 신호기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고,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명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신설 시에는 인근 도로의 교통흐름 및 보행자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신호등 설치 및 조정도 함께 검토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 효율성 모두를 확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신설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신설되는 횡단보도 이용 방법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두1동 횡단보도 증설은 보행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마두1동 횡단보도 신설은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 약자의 안전을 크게 강화하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현재 육교만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되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고양시의 교통 안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접근성 개선은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인근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산책,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에 더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보행 약자 밀집도와 기존 횡단 시설의 부족 문제는 명확하므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기초와 부합하여 사업 추진의 명분이 충분합니다. 고양시와 일산동구는 이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용이합니다. 또한, 비교적 짧은 구간(349m)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이므로 대규모 예산이나 복잡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기술적,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 배경 및 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도로나 다리가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작년 여름 하루에만 호우 관련 피해 접수가 627건이었습니다. 특히 연천군 임진교는 홍수특보지점으로 지정될 정도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임진강 주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양주시 옥정호수 인근 도로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사고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많은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반복되는 사고 예방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 알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는 사고 관련 내용을 접하기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재난이력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내용 및 개선방안

연천군 임진교와 양주시 옥정호수 등 침수 위험이 있는 다리와 도로 주변에 단순한 주의 표지판 대신 과거의 재난이력이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의 재난이력이 적힌 표지판을 설치하면 기존의 '침수 주의'와 같은 경고를 넘어서 운전자들에게 구체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강 위에 있는 다리를 중심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의 도로 같이 침수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표지판을 설치해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그곳이 사고가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이력 표지판에는 과거에 침수가 되었던 장소이므로 비가 올 시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적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외부 방문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글자뿐만 아니라 지도나 사진 등 시각자료를 포함하여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표지판과 비슷한 높이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지판이 침수되어 밀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과거 재난 이력 표지판을 설치하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재난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외부 방문자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이력 표지판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존 도로 표지판이나 가로등에 붙이는 등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에 대해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난 이력 표지판이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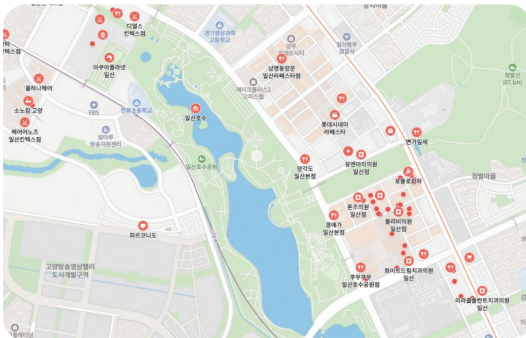


제안 배경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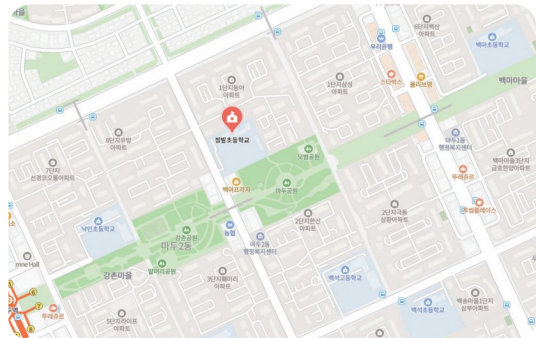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이나 하네스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모든 반려견이며 1차 위반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가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견주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각종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1년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사고는 약 2,000건이 넘어서고, 4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반려견에 관한 정책이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다. 더불어, (헬스조선)에 제시되어 있는 “2022년 소방청 안전사고 비율 발표”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중 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특히 큰 영유아와 미성년자가 개에게 물렸을 경우 중상일 경우가 무려 4.9%(출처:세계일보)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하기에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도와줄 수 있는 일명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 도입이 시급하다.

제안내용 및 개선방안

공원이나 학교 주변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 배치



▲ 일산동구 일산호수공원 인근(네이버 지도 캡처)



▲ 일산동구 정발초등학교 인근(네이버 지도 캡처)

경기 북부 고양시 호수공원의 연간 관람객은 2017년 기준 약 630만 명이고 관람객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 또한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올바른 안전 수칙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목줄을 풀고 반려견을 뛰어들게 하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올바른 반려 문화 홍보를 위해 반려견 산책이 많은 장소에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를 우선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고양시 호수공원에는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개 물림 사고와 목줄 미착용 반려견으로 인한 불안감이 클 수 있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 오후 시간에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를 배치함에 따라, 보다 많은 견주들에게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산책이 많은 공원과 밀접하게 있는 정발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지자체에서 공공장소

의 목줄 미착용과 맹견 입마개 착용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를 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홍보성이 강한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원들이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안전과 배려를 홍보해 올바른 반려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순찰대원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시니어 시민, 교육관계자, 고등학생 대학생 봉사자로 구성되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봉사 시간 인정 등의 혜택 등도 줄 수 있다.

기대효과 및 실현가능성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를 배치함으로써 견주들의 배려심 향상과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홍보

경기 북부 고양시 호수공원과 정발초등학교 등 반려견 산책이 많은 지역에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 배치 정책을 시행하면 일부 목줄을 풀고 다니던 견주에게 배려심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개 물림 사고의 위험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등학교와 공원의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인식시켜 미래에 우수한 반려견주가 될 수 있는 높은 교육 효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kb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유치원과 학교에서 소방안전 교육, 금연 교육을 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반려견 목줄 지킴이 순찰대의 홍보를 경험하게 된다면 훌륭한 반려견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지속적인 순찰대원들의 교육과 사고 통계분석, 시민들의 만족도 검증 등을 통하여 정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발언 주제	고양시 청소년 문화 공간 부족 문제와 해결 방안
의원명	조예원
지역구	일산동구
학교	일산양일중

발언 주제	고양시 베드타운 문제와 해결책
의원명	양은호
지역구	일산동구
학교	풍동중

발언 주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준비 과제
의원명	강라현
지역구	일산동구
학교	백신중

발언 주제	고양시 도서관 운영 시간
의원명	박하영
지역구	일산동구
학교	백마중

발언 주제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원명	선가은
지역구	일산서구
학교	일산동고

발언 주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동하는 고양시 펫 버스
의원명	송부경
지역구	일산서구
학교	신일중

발언 주제	고양시 청소년 공부 공간 부족
의원명	이서현
지역구	덕양구
학교	지축중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조예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 청소년 문화공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중간에 남는 시간 동안 카페에 가거나 피시방에 갑니다. 이 이유는 주변에 가까운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각 구마다 청소년센터가 있고, '무중력지대'와 같은 청소년·청년 전용 공간도 있어서 이곳에서 친구들과 모여 활동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서울은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엔 청소년들이 카페나 피시방 말고도 다양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양시에도 일산, 화정, 행신 등 여러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이 있긴 하지만 센터가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어서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흥이나 삼송, 향동에 사는 학생들은 가까운 청소년센터까지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끝나고 짧은 시간에 들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제한적입니다. 서울의 청소년센터는 전시, 공연, 진로 탐색,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고양시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몇 가지 활동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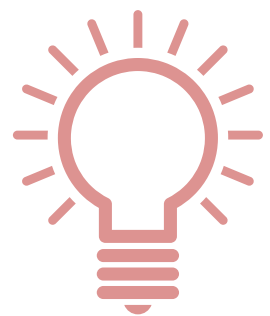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청소년센터 외에는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카페, 피시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비용이 들고, 피시방은 안전한 공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공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고양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구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중교통으로 10~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센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진로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여러분, 고양시에는 약 18만 명의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주어진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울처럼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양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의 베드타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 덕분에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높지만, 일자리나 문화·산업 시설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출퇴근이나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양시의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이유는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산 신도시, 덕양구, 향동지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낮에는 텅 비고 밤에는 꽉 차는 도시’, 즉 베드타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 청년층 외부 유출, 지역 정체성 약화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시민이 기대했던 사업이 바로 일산 CJ라이브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블랙핑크,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이 고양시에서 열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고, 최근에는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리고 있어 저 역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사업비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 그리고 사업 주체 간 협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한 끝에 CJ뉴스룸의 뉴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CJ라이브시티의 입장”이라는 뉴스의 내용을 알아보면,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 해졌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기에,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양시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많은 시민은 단순히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비전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자족 기능 확충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덕양, 향동, 삼승 등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문화·상업 기능을 배치하고, 기존 사업은 점검해서 속도를 높이며, 신규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권역별 기능 배치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예산, 인력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예를 들어 덕양구는 청년 창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일산은 의료·바이오산업과 대형 공연장 중심 등으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고양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별 협의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베드타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시청, 지역 기업, 청소년·청년·시민 대표, 문화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분기별 또는 최소 반기별로 정기 운영해 주십시오. 기존 협의체들과는 달리, 이 협의체는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지역별 우선순위 설정과 사업 추진 상황 점검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 중심 일자리와 문화 공간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고양시 청년이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청소년 문화복합시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도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일산서구에는 고양시 청년창업허브, 덕양구에는 경기문화창조허브 등 관련 시설이 존재하지만,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접근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동부권이나 향동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은 문화·창업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권역별 균형을 맞추고, 관련 예산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넷째,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현재도 고양시에서는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특정 세대 중심으로만 의견이 수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 분기별 1회, 그리고 청소년·청년·중장년 등 세대별 포커스 그룹 형태로 나누어 공청회를 운영하고, 온라인 의견 수렴 시스템도 상시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드타운 문제와 같은 중장기 정책 의제에 대해서는 이런 상시적 시민 의견 수렴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더 이상 서울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와 문화, 경제 생태계를 갖춘 자립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시작은 베드타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CJ라이브시티 사례를 교훈 삼아 문화콘텐츠 기반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방안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강라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의 교육 현실을 출발점으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학교 간 교육 환경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고양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전출 인구는 연평균 약 7만 명이며, 이 중 10대의 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의 주요 전출 요인은 '교육'으로,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고양시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와 청소년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청소년의 인구 수 또한 감소하고 있어 교육 문제는 고양시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 간 인프라 격차입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선 전공 교사 확보, 실습 시설, 행정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 조건들이 부족해 일부 학교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 거의 없어 이 과목들을 들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과목을 따라가기 버거워하며 학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교사의 부담 증가입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 운영, 학점 관리 등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월 실시한 '2025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사 97.6%가 새로 바뀐 고1 출결 처리 방법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지원의 부족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진로와 과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진로를 담당하는 진로전담교사는 1명뿐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1명당 200명 이상을 담당하기도 하며, 학생마다 여러 차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충분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가 2023년에 진로전담교사 증원을 발표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아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학생들의 진로 준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고교학점제 반대 시위에서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계속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 고교학점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가 아니라, 교육청이 각 학교의 과목 개설 수준, 진로전담교사 등 교사 배치,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학교마다 필요한 기준을 정해주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개설 과목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해 과목 선택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고, 교사들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마다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분명 미래 교육의 큰 흐름이며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고 여러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정책을 통해 고양시가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 도서 시설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문제를 깊이 우려하며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빌리는 장소를 넘어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 창의성 발달, 독서 습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배움터를 가지고 배움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조,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특히 어린이를 위해 도서 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것 또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20개 시립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은 대부분 6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도서관 자체는 열려있더라도 어린이 도서관만 운영 종료되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 늦은 시간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시는 “사람을 향한 도시”를 표방하며 문화와 교육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운영 시간이 시민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모는 퇴근 후 자녀와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필요하나 퇴근 시간 이후에는 도서관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원 등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주 이용시간 또한 6시 이후입니다. 어린이의 주 이용 조사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6시 이후의 도서관 이용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15%나 나왔습니다. 이는 고양시 16만 청소년들 즉, 약 2만 4천 명의 청소년들이 6시 이후 이용할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어린이 도서관의 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시 내부의 어린이 인구나 학부모들의 도서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 교육, 방과 후 학습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커짐으로써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이용 시간 증가와 관련하여 서울의 몇몇 어린이 도서관은 평일에도 오후 8시까지 운영되어 다양한 계층이 특히, 어린이가 더욱 많은 시간 동안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양천구 개울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이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고양시는 먼저 시범적으로 몇 개의 어린이 도서 시설의 이용 시간을 8시까지로 늘린 후 이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합니다. 주업 어린이 도서관, 행신 어린이 도서관 등 비교적 이용률이 높은 몇 개의 도서관을 먼저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 순으로 사업을 진행 시킴으로써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 삼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야간 개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은 자원봉사자, 혹은 순환 근무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연장할 경우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사유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운영 시간이 지금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일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아동의 학습권과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도서관의 문이 더 오래 열릴 때, 비로소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 또한 더 멀리, 더 깊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가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선가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에 서울시 시민 3,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3.3%의 응답자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서강대학교 서강학보에 실린 기사에서 대학생 김 모(23) 씨는 "쓰레기통이 딱 차서 대충 옆에 버리거나, 길거리에 무단투기한 적도 있다."며 "쓰레기통을 조금 더 확충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시민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고양시보다 쓰레기통 수가 많은 서울시 시민조차 쓰레기통 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고양시 시민이 겪는 불편은 얼마나 클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남시는 인구 90만 명이 1,500개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인구 106만 명이 116개의 쓰레기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인구 1만 명당 약 16개의 쓰레기통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고양시는 인구 1만 명당 단 1개만 제공하고 있어, 성남시보다 약 15배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와 음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투기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버스 내 음료 반입 금지로 인해 특히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버스정류장에 주목하여 이러한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음료 반입이 금지된 버스에 탑승하기 전, 시민들이 마시던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료를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리수거함을 뜻합니다. 분리수거함을 커피컵 모양으로 만들게 된다면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확률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리수거함이 무엇을 버리는 곳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분들도 가까운 곳에 설치된 커피컵 모양 분리수거함을 통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리풀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서초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4%(336명)가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분리수거함 역할을 하는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도모', '자원의 재활용', '도시미관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고양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던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료를 분리수거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무단투기 되던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분리수거함의 명칭을 고양시의 상징인 “선하고 친절한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까치”를 활용해 “환경을 위해 직접 실천하는 선한 고양시민”이라는 뜻으로 “까치컵”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까치컵”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면 시민분들께 긍정적인 뜻이 담긴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 내 초·중·고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고양시민이 직접 제안한 디자인을 실제 반영한다면 시민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리수거함에 남은 음료를 버릴 수 있도록 음료 투입구를 함께 만든다면 시민들이 남은 음료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음식물 처리로 인해 곤란을 겪던 시민분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면 ‘분리수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음성을 넣는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고양시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송부경 의원입니다.

오늘날 고양특례시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반려 문화와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동에 있어 반려인들이 겪는 불편은 매우 큼니다. 저 역시 반려견과 생활하며 차량이 없을 때 장거리 이동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동장에 반려동물을 완전히 넣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2025년 4월, 군포시 31번 버스에서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고 승차하려던 시민이 기사에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운수업체는 기사가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기사님의 승차 거부나 승객들의 민원으로 인해 실제 이용은 어려운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응답소에도 같은 유형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고령층 반려인들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이동권 침해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물론 펫 택시라는 대안도 존재하지만, 일반 택시에 비해 평균 요금이 20~30% 이상 더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에 저는 고양시 '펫 버스'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펫 버스는 리드줄과 하네스를 착용한 반려동물을 동반한 반려인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좌석마다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만 탑승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동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하는 반려인은 배변 패드를 반드시 지참하고, 버스 내에는 소독티슈, 탈취제, 위생봉투와 같은 청소 도구를 비치합니다. 정류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용품점, 공원 등 반려 관련 시설과 연계해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려견 전용 관광버스 투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좌석 간격을 넓히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맞춤형 설비를 갖추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 예약은 대부분 매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고, 이용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동 수요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펫 버스 도입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활성화와 유기동물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확보,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범 노선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뒤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펫 버스 정책은 고양시 반려인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의회 이서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공부할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와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항상 '공부에 집중하라',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정작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좁은 방, 시끄러운 환경, 가족과의 공간 공유 등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도서관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늘 만원이고,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공부할 환경이 없는 청소년들이 학습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습 환경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학습 공간을 제공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집중력과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밖 학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사회 곳곳의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문화 시설과 편의 시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 청소년이 '공부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청소년을 단순한 미래 인재가 아니라, 현재 이 도시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들은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학교 내 별도 학습 공간 마련, 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유휴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부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학교 내 자율학습 공간의 방과 후 개방입니다. 지역 내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교실이나 빈 강의실을 방과 후 및 주말에 지역 청소년에게 개방하고, 이를 위한 인력(관리자 또는 자원봉사자)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부방' 조성입니다.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용한 학습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 및 청소년 의견 수렴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가능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공간 운영 방식과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 공간'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정한 '학습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부할 공간 부족은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고양시가 청소년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모든 청소년이 공평하게 공부할 권리를 보장받는 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1.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2.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3.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
4. 청소년의 자아개발을 도모
5.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유도
6. 청소년의 리더십을 함양
7. 청소년의 창의성을 발휘
8.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9.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10.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11.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12.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13.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14.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15.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16.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17.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18.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19.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20.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21.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22.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23.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24.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25.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26.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27.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28.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29.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30.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31.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32.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33.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34.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35.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36.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37.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38.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39.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40.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41.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42.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43.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44.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45.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46.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47.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48.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49.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50.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51.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52.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53.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54.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55.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56.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57.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58.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59.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60.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61.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62.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63.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64.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65.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66.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67.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68.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69.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70.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71.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72.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73.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74.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75.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76.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77.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78.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79.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80.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81.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82.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83.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84.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85.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86.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87.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88.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89.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90.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91.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92.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93. 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94. 청소년의 리더십교육을 실시
95. 청소년의 창의성교육을 실시
96.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실시
97.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실시
98.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실시
99. 청소년의 취업교육을 실시
100.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실시

제3편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에 에필로그

청소년의원 의정활동 소감 - “나에게 고양시청소년의회란?”

113

청년멘토 소감 -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 멘토를 마치며’

129

청소년의원 의정 활동 소감

나에게
고양시
청소년의회란?





의장
김다인

고양국제고, 2학년

제8대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는 저에게 ‘청소년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고,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청소년 참여를 넘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접 체감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값진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청소년의회라는 공간은 저에게 고양특례시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생각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의정 활동의 시작점이었던 발대식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마음에 새겼고, 이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책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정책 제안 활동에서는 공모전 정책을 준비하며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며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소중한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제안 과정에서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경험은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 고양특례시 의회에서 논의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이 제가 의회 활동을 계속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자,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제안 활동을 거치며 저 역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아울러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공동체적 사고 또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정책제안 활동뿐만이 아닌 청소년 기구 간 연합 활동, 워크숍 등의 다양한 교류 활동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각자의 다양한 관점과 배경, 경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청소년 간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계기였으며, 각자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존중과 소통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회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본회의는 제8대 의정 활동의 정점을 찍는 공식적인 자리로, 지금껏 의원들이 고민하고 준비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하나하나가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기획된 목소리가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다시금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8대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저는 지역사회 속 청소년으로서의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의정 활동은 제게 단순한 봉사나 참여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과 의식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정 활동의 과정,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리더십, 협력적 의사소통,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공동체를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8대 의정 활동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김귀영 선생님,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양특례시 모든 청소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선가은**
일산동고, 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선가은입니다. 처음에 저는 학교 게시판 모퉁이에 붙어 있던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포스터를 보고 긴장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고양시 청소년의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면접에서 붙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환경경제위원회의 의원이어서, 고양시 청소년의회 부의장으로, 16만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을 대표하는 청소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놀랍고 저에겐 과분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부족했던 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많은 의원님들과 멘토님, 다양한 분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여러 활동과 맡은 역할에 따른 일을 수행하면서 소통과 협력하는 능력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들을 극복하고 결국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냄으로써 저는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폭 넓은 시야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값진 경험들이 저의 커다란 자산이 되었기에 저는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년의회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전하시길 바라며 정말 값지고 멋진 경험을 통해 활동이 끝난 뒤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청소년의회가 고양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더 나은 고양시를 위해 도전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하영**
백마중, 1학년

고양시청소년의회는 단순히 지역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구가 아니었다. 특히 나에게 있어서 다양한 배움의 터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자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초반에는 경험도 지식도 부족했기에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의정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자리였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선의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의정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청소년의회는 고양 시민(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귀중하고 값진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은호
풍동중, 3학년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2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청소년의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정기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정책 제안과 토론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선택이 쉽지 않은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제게는 값진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활동을 이어가며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매 순간 쌓아온 경험과 배움이 모여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회 활동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저 스스로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양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의정 활동을 통해 배운 소중한 가치와 경험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늘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송부경
신일중, 3학년

저는 2023년도에 청소년 참여기구를 처음 접했는데 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둘 중 고민했었다가 의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베이스를 깔고서 의회로 가자고 생각하고 활동하다가 2025년도에 의회에 오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많은 걱정들을 안은 채 회의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많이 무겁지 않아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고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며 추억들도 많이 쌓고 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였기에 활동하면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많은 의원님, 멘토님들과 활동하면서 본받을 만한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의회는 저에게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고 회의를 하는 공간을 넘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발전시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낯설었던 자리가 지금은 저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나누며 조율하고, 정책제안서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협업해서 작성하고 혼자였다면 몰랐을 고민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저에게 제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만난 분들께 배운 점을 마음에 새기며 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김예승
백마중, 1학년

마두청소년수련관에 친구들과 놀러 왔다가 모집 공모 포스터를 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하였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거나 ‘회의를 매일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흥미가 점점 생기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피드백이 들어올까?’, ‘어떠한 점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제안서를 수정하는 것과 정책 제안을 하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의회 활동을 하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정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늘 후회하지 않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김귀영쌤(담당자 선생님),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등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김예음
정발고, 1학년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김예음입니다. 저는 이번 청소년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할 때는 청소년의회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실제로 내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활동이 단순한 경험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회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발히 토론하고, 대학생 멘토님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직접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삶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청소년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꼭 한 번 경험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생각과 요구가 실제 사회 정책에 반영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스스로 성장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활동하며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과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혜리
서울디지털대, 1학년

어느 날 우연히 청소년의회 활동 모집 안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사회 문제나 정책, 특히 청소년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청소년의회 활동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안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끌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청소년 의원’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는 잠시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의원이라는 직책이 주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내는 역할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 같았고, 한 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이 시작되고 나서는 매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구체화하고 자료를 찾고, 회의 안건을 정리하고, 제안서를 만들어 가는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팀워크’였습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고, 진행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부담스러웠던 ‘의원’이라는 역할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는 관계, 그것이 이번 활동에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의회의 활동은 단지 몇 번의 회의나 한두 개의 제안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민, 소통, 협력, 그리고 책임이라는 값진 경험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안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나도 누군가의 삶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절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었던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8대 청소년의회의 활동은 저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특별한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진하민
백마중, 1학년

16만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준비도 없이 연 마두청소년수련관의 문!

고양시청소년의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 지식, 가치관 등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고양시청소년의회란 단순히 선후배들과 만나 정책을 제안을 계획하는 틀을 넘어서 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말뿐만이 아닌 진짜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저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제 목소리는 단순히 무의미한 불평이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는 진정한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느 활동보다 더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의회 활동으로 비롯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장되었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 해결책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평소에는 만나볼 기회가 점차 없었던, 시장님, 선배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보며 저의 생각의 질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의원님, 각자 다른 나이의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면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어 남을 이해하고 저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5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환경경제 위원장이라는 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는 저에게 부담감을 주면서도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원장을 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가 높은 제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면서 저는 나날이 성숙해져서, 잘해야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PPT를 준비하면서 발표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청중이 되어 보기도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발표를 잘하고 내용도 좋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갈망이 들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솔직히 의정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주도해서 조율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가끔 답답함에 저도 논쟁에 끼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있었기에 많은 의견을 만들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면서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로 저희 위원회 의원들은 성장해 나아갔고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쌓여 거대한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모래성 안에는 성장한 저희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에게 “너는 너무 어려”, “이건 어른들 이야기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세대의 어른입니다. 저희도 같이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서 저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저희 사회에 막대한 중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청소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향한 작은 한걸음이 인류의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니깐요.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라현
백신중, 2학년

저에게 고양시청소년의회란 한 해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하게 해준 곳입니다. 맨 처음 지원할 때는 앞선 선배님들의 결과물을 보고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해 좌절했지만 결국에는 붙어서 지금 저는 8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기도 잠시 일에 치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즐거운 즐길 수 있는 일도 많고 일에 몰두하며 점점 성장해 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로 인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먼지만 쌓여가던 컴퓨터를 킬 일이 많아졌다던가, 주말에 더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요. 도전했는데 실패했다면 분명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분명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세요!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김시현
일산양일중, 2학년

고양시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진중한 분위기에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활동을 이어 나가니 걱정보다는 책임에 대해 거듭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회의 이슈에 둔감했던 저는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고, 학교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의정 활동 중에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첫째, 학교보다도 더 넓은 사회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의원분들을 보면서 조언을 주고받으며 스스로가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료 조사부터 정책제안서 작성 이외에도 의정 활동은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멘토님들, 담당자 선생님의 전문적인 피드백과 말씀을 귀담아들으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사회에 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양시 시민의 모습 아닐까요? 청소년의회가 더욱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김재이
 정발중,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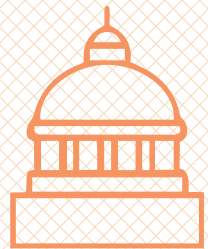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김재이입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에 속하여 단체생활과 의정 활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고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위원장 같은 직책을 맡진 못했어도,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함께 의회
 를 이끌어주신 모든 의원분들과 멘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의원
차정운
 정발초, 5학년

2024년 4학년 때 엘리베이터에서 우연이 보고 지원하게 됐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 저처럼 무식하게 책임감 없이 들어온 분들은 없어서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의회에서도 멀뚱하게 앉아 있는 이상한 초등학생
 에게 먼저 다가와 준 언니, 오빠, 멘토님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
 소년들을 대표해서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죄송했습
 니다. 그래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의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참
 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주연
백석중, 3학년

청소년의회 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활동이었지만, 이제는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진 소중한 일상이 되었고,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생각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해마다 다른 주제와 안건들을 다루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해결책까지 고민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청소년 의원들과 협력하며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번 도전이었고, 동시에 큰 배움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다양한 회의와 토론, 정책 제안을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작은 의견이라도 꾸준히 말하고 행동하면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워 보였던 정책 제안서 작성이나 발표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후배 의원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회의 일원으로서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안과 실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사회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청소년의회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우
저현고, 1학년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으로써 의회 활동은 저에게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며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청소년 또한 충분히 사회문제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손으로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발의한 정책이 의결되지 않거나 제안이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청소년이라는 정치적 소외 계층에게 청소년의회라는 기구의 의미와 의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고 덕분에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양서연
정발중, 3학년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처음 지원할 때는 낯설고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활동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평소에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의 구조나 교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며 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동료 청소년의원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조율해 가는 경험도 무척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더 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활동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고민과 시행착오 또한 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준 동료 청소년의원들과 따뜻하게 이끌어주시는 멘토님들 덕분에 즐겁고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변을 더 살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이국
서울디지털대, 1학년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실제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준비하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토론 시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노력했던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뉴스나 수업 시간에서만 접하던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도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한 사람의 목소리도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이후로, 제 주변의 사회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앞으로의 진로와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이서현
지축중, 2학년

청소년의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한 사람의 청소년이 어떤 '의회'에 속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막연했던 이름 속에는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고양시청소년의회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끼고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내 생각이 정책이 되고, 내 고민이 누군가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험은, 이전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나 역시 때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이 의회 속에서 나는 작지만 단단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도 충분히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물론 쉬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나의 제안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닿을 수 있다는 책임감은 때로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청소년의회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그 사회를 위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던 나였지만, 회의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나만의 답을 찾아갔다.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우리는 서로에게 배움이자 용기가 되어 주었다.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모이고, 그 목소리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출발점이 꼭 어려운 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의 작은 발언이,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그려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 그 시작을 청소년의회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는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주은
백석중, 3학년

이번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7대 활동에서는 처음 참여하다 보니 미숙한 점도 많았고, 주로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8대에서는 그때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며 주도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회 활동은 쉽지만은 않고,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년에도 다시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멘토님들, 선생님,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 의원분들 덕분에 늘 많이 배우고, 큰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참여했던 정기회의와 평가회들을 통해 나온 우리의 정책들이 앞으로 시정에 더 많이 반영되어, 청소년의 목소리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리
오마중, 2학년

처음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함께 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청소년의 문화와 복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의 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그 안에서 협력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준 위원분들, 그리고 늘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선생님과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이혜인
일산양일중, 2학년

안녕하세요, 고양시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인입니다. 저는 처음 청소년의회에 참여했을 때, 솔직히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막연한 기대와 걱정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범식에 참석하고 나서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뱃지와 의원증을 직접 받으면서 '진짜 내가 고양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의회에 대한 관심도 훨씬 커졌던 것 같아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뭔가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면서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바꿔볼 수 있다는 경험이었어요. 특히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야도 넓어졌고, 내가 몰랐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거든요. 저한테 청소년의회는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사회' 같았어요. 내가 가진 생각에도 힘이 있고, 그걸 통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경험은 제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고민하고 참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조예원
 일산양일중, 3학년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면접을 보고, 워크숍에 참여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여해 제 의견을 나누고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또 단체 활동을 통해 협력하는 법도 배우며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지만, 의회 활동을 하며 자유발언을 하거나 공모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부족했던 정책 제안서도 회의를 하며 내용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점점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 의회 활동은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조현솔
 백석중, 3학년

저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이었던 친구를 따라 청소년의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한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게 느껴졌는데 청소년의회를 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들이 분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탈하게 의회 활동을 하게 도와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멘토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멘토 소감

고양시청소년의회
운영 멘토를
마치며





청년 멘토 이다슬
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세요. 청년 멘토 이다슬입니다. 제가 청소년의회 멘토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8대 청소년의회 첫 만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첫 모임 가기 전까지 '과연 의원님들과 잘 친해질 수 있을까?', '나를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한, 다른 활동을 통해 보았던 의회의 모습은 늘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였기에, '과연 내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긴장하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첫 만남부터 의원님들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며 금세 친해지는 모습을 보고 안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원님들이 정책 제안서 작성에 대해 어려워할 것 같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정책 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팀원들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주도하에 서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멋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배려하며 의회 활동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한 번 더 배웠습니다. 멘토로서의 첫 활동을 고양시청소년의회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도 저를 믿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던 김귀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툰 멘토였지만 잘 따라와 준 기획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1년은 제게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멘토 박정민
환경경제위원회

의회 활동은 언제나 제 일상 속 작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처음 계획했던 활동에 비해 열심히 활동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의원 여러분에 대한 죄송함이 함께 듭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께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고양시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며 느꼈던 것을 여러분께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보람과 성취감을 이번 의회 활동을 통해 느끼고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배우며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 변화는 분명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제가 해왔던 것처럼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활동해 주신 노희수, 이다슬, 백채린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김귀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의 성취가 헛되지 않도록 저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청년 멘토 백채린
건설교통위원회

저는 제7대부터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분들께서 의회 활동에 흥미를 갖고 의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회 활동을 보조해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보답받은 것인지 작년에 비해 청소년의회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덕에 올해에도 열정이 넘치는 의원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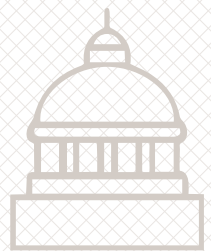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거쳐 '대화역 사거리 교통섬 추가 신호등 설치'라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멘토단의 일원이었기에 의정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나 의원분들께서 정책 제안 중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정책제안서 작성 중 난감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정책 제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청소년참여기구와 함께한 정책워크숍 등에 함께 참여

하기도 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직접 정책제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의원님들을 보조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뿌듯함 또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 활동뿐 아니라 정책 제안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었다 보니 종종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부담감 또한 컸지만, 모두 이 활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회 활동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출범식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귀영쌤과 희수 멘토님, 정원 멘토님, 다슬 멘토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완벽하지는 못해도 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제게 큰 도움을 주었던 가장 친한 친구 민재(7대 멘토)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저를 대신해 저희 상임위의 정책제안을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저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더 좋은 정책제안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의회 활동을 계기로 활동에 참여한 모두가 정책 제안에 더 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불편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멘토 노희수
문화복지위원회

‘잘 듣는 멘토가 되자.’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을 시작하며 했던 다짐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했던 참여 활동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담당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결과물이 나오곤 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정책 제안이라는 활동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청하는 멘토가 되고자 했는데, 활동을 통해 저의 의도가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의회 멘토 활동을 하면서 저부터가 의정 활동을 경험해보지 않아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활동 중에 스스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함께한 의원님들과 귀영쌤, 그리고 멘토쌤들 덕분에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임 의원님들이 많았던 문화복지 위원회와 함께 배워나갈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저

또한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함께 최선을 다해준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보다는 암기가, 표현보다는 이해가 익숙한 사회에서 고양시의 문제를 질문하고 정책 제안이라는 도구로 표현한 의원님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현하고 참여할 고양시청소년의회와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4편 부록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01.10 조례 제28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청소년”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1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0.>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 ② 의원의 수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5조(선출방법)

-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단서 삭제 2025.1.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 ③ 삭제 <2025.1.10.>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 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3. 환경경제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4. 건설교통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5. 문화복지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
-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⑧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접수된 안건의 배정은 규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10.>
-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제11조(지원)

-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제12조(의견반영) 시장은 아동·청소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13.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0.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백서

발행일 2025. 10. 18.

발행처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발행인 이재신

편집인 김귀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대표전화 031-995-4154

홈페이지 www.gcyf.or.kr/vote

발간번호 GCYF-2025-03-004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3092-0191



고양시청소년의회
Goyang City Youth Council

